

牛溪 成渾의 詩世界

- 遊山과 僧侶交遊를 중심으로

임준성*

<차 례>

1. 머리말
2. 遊山과 자연 풍경
3. 僧侶 交遊와 寺刹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16세기 성리학자 牛溪 成渾(1535~1598)의 시세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는 75편 82수의 한시를 남겼는데, 이는 다른 문인들에게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수치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성혼의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물론 성혼이 일평생을 걸쳐 추구한 것은 성리학이었다. 그러나 그의 문학 또한 성리학과 마찬가지로 성혼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자료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성혼의 한시 작품에서 遊山 취향을 보여주는 것과 부친 成守琛부터 인연을 맺은 스님들과의 교유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시세계를 조명해보고자 했다.

성혼은 병약한 몸으로 인해 다른 사대부들과 달리 遊山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 더구나 멀리 떨어진 곳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대신 그의 거주지인 坡山과 가까운 天磨山과 紺嶽山 등에 올라 자연의 완상하고 즐기는 취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을 대하는 성혼의 마음은 일체의 갈등과 동요를 보이

* 조선대학교

지 않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가 道學을 통한 인간 완성에 뜻을 두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遊山の 연장선에서 성혼은 스님과의 교유를 통해 사찰공간에 대해 개의치 않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중 스님과의 교유는 성혼이 아닌 부친 成守琛이 생전에 교유했던 스님들과 대를 이어 교유하고 있는 모습을 특성이다. 성수침이 남긴 詩를 次韻하여 부친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특히 遺墨의 경우는 뜻하지 않는 만남으로 인해 생전의 부친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성혼의 인생 후반부에 이르면 壬辰朝日戰爭이 발발하여 온산하대지가 倭賊에 의해 유린당하는 현실 속에서 지식인의 나약함에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憂國과 愛民의 복잡한 심사를 달래주기 위해 선택한 곳은 寺刹 공간이었다. <次神光寺詩軸韻>라는 작품은 그가 이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딛고 새롭게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성혼에게 사찰 공간은 儒佛의 分別이 아니다. 儒佛이 향하는 목적지를 위해 서로가 방법을 달리 할 뿐이지 결국은 모두 다 같은 사람이라는 會通의 자세로 봐야 할 것이다.

핵심어 : 牛溪, 成渾, 成守琛, 遊山, 僧侶交遊

1. 머리말

文間公 牛溪 成渾(1535~1598)은 栗谷 李珣(1536~1584)와 함께 16세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이다. 성혼은 隱逸志士로서 일평생 出仕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했던 부친 聽松 成守琛(1493~1564)의 영향을 받아 삶과 학문에서 업적을 인정받아 文廟에 배향된 18인 중이 한 분이 되었다. 이처럼 성혼의 올곧은 성품과 학문에 대한 정치한 정신은 후일 ‘東方

의 聖賢'이라 평가받았다.

成渾의 성리학적 가치는 文廟에 배향된 영광 이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앞선 세대의 선배격인 退溪 李滉(1501~1570)과 高峯 奇大升(1527~1572)의 '四七理氣論爭'을 이어 李珣와 함께 '四端七情理氣說'로 확대 발전시킨 일은 16세기의 주요한 학문적 논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존에 성혼 연구의 주요 부분은 성리철학적 담론에 치중해 있었으며, 이는 한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사대부들의 일상을 오로지 성리학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사대부들도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다. 그들은 성리학에 전념하면서도 한편 사대부들의 餘技인 詩書畫 또는 六藝¹⁾를 통해 단조로운 생활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중 詩作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文學·歷史·哲學 곧 소위 인문학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文史哲이 분업화 되어 있는 현대와는 달리 당대에는 어느 하나에 치중하지 않고 서로 會通하는 유연한 사고를 지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성리학이 도입된 고려 말에 서부터 조선 후기까지 문인들이 남긴 문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文以載道라는 고정적 관념 탓에 文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은 해당 문인의 삶을 다양하게 조명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牛溪 成渾의 漢詩를 다루고자 하는 것도 그의 성리학적 삶 이외에도 진솔한 인간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성혼의 시는 『牛溪集』 권1과 『牛溪續集』 권1을 합하여 모두 75편 82수가 남아 있다. 그와 함께 교유했던 李珣, 鄭澈(1536~1593), 宋翼弼(1534~1599)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탓에 성혼의 詩文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며, 그나마 성리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문학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

1) 六藝는 禮, 樂, 射, 御, 書, 數를 말한다.

다.²⁾ 이에 필자는 그간의 성혼 시문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그의 文學觀과 交遊詩를 살펴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밝히고자 시도했다.³⁾ 그러나 성혼의 지인과 교유를 통한 생활의 단면을 파악하는 일에 불과할 뿐 좀더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한계를 절감했다.

이에 본고는 그 후속 연구에 해당하며 성혼이 遊山을 통해 자연친화의 경향을 살피고, 또한 불교적 배경에 대해 선입관을 지니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착안했다. 따라서 그가 자연풍경을 어떻게 감상 하였으며, 부친 성수침과 인연을 맺은 스님들이 자신에게도 이어진 交遊가 詩를 통해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혼의 儒佛 간에 會通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성리학적 인간에 가려진 그의 자연적 인간의 모습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2. 遊山과 자연 풍경

成渾은 부친 成守琛과 마찬가지로 일생을 벼슬없고 은일지사의 삶을 지향했다. 비록 임금으로부터 벼슬을 제수받았어도 병으로 사양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는 올곧음을 보였다. 그는 宦路로 나가는 대신에 일평생 뜻이 맞는 지인들과 학문적 토론을 즐겨했으며,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을 일관되게 살았다.

사대부들에게 성리학이라는 학문 외에 修身의 한 방법으로 名山大川을 두루 다니는 遊山 체험이 있다. 이를 통해 浩然之氣와 風流를 일삼았으며,

2) 현재까지 우계 성혼의 문학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성기조, 「牛溪詩評說」, 『批評文學』 3호, 한국비평문학회, 1989. 원용문, 「우계 성혼론」, 『漢文學論集』 12호, 근역한문학회, 1994. 정상균, 「성혼 시세계 연구」, 『古詩歌研究』 7호, 한국고시기문학회, 2000. 구본현, 「성혼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6호, 한국한시학회, 2001.

3) 임준성, 「牛溪 成渾의 ‘尙友’ 指向」, 『인문학연구』 42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이에 대한 문학적 결과물은 ‘遊山詩’ 또는 ‘遊山記’로 남겼다. 그중 산문 양식인 遊山記가 훨씬 많이 남아 있다. 조선 전기에는 梅月堂 金時習(1435~1493)의 <遊關西錄>, <遊關東錄>, <遊湖南錄>, <遊金鰲錄>⁴⁾ 등이 대표적이다. 성혼의 知友였던 李珣 또한 젊은 시절부터 遊山을 즐겨했는데, 그중 금강산을 기행하며 지은 <楓嶽行>⁵⁾은 五言古詩 600구 3천자로 이루어진 장편 대서사시이다. 그러나 성혼은 병약한 몸 탓에 遊山을 즐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그는 가까운 산에 올라 계곡에 앉아 쉬는가 하면 산에 살고 있는 지인을 찾아가서 산속의 삶을 간접 체험한 것으로 보인다.

滿山松月入窓深 산 가득 송월이 창문 깊이 들어오니
 淸夜欣然會此心 밤 밝아 기쁘니 마음에 흡족하네
 更有飛泉鳴遠壑 폭포수 소리 또 먼 골짜기에서 울려오니
 杳如風雨在深林 깊은 숲에서 비바람 부는 듯하네⁶⁾

달밤에 홀로 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지은 것이다. 소나무에 달이 걸렸다고 했으니 때는 한밤중이다. 온산 가득 달빛이 비추고 시인이 들어앉은 방에도 달빛으로 가득찼다. 고요하고 맑은 밤을 즐기니 마음 또한 흡족하다. 어디선가 저 깊숙한 골짜기에서 폭포수 소리가 들려온다. 마치 비바람이라도 부는 것처럼 그 소리마저 아득하다. 앞 2구와 뒤 2구가 靜과 動의 대비가 시각과 청각으로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어 달밤의 경치를 선명하게 그리고 있다.

위 시는 성혼이 산중에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滿山’이라는 표현에서

4) 金時習, 『梅月堂集』 권9, 10, 11, 12

5) 李珣, 『栗谷全書拾遺』 권1, 한국문집총간 45, 467쪽. 한국고전번역원. 이 시는 제목대신 序가 실려 있는데, 약칭하여 <楓嶽行>이라고 부르는 관례를 따랐다. “余之遊楓嶽也 懶不作詩 登覽既畢 乃撫所聞所見 成三千言 非敢爲詩 只錄所經歷者耳 言或俚野 韻或再押 觀者勿嗤”

6) <月夜獨吟>, 『牛溪集』 권1, 한국문집총간 43권 9쪽. 이하 해당 작품을 인용할 때는 권수와 쪽수만 밝힌다.

시인이 산속에 머무르고 있음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다. 시 전반에서 자연을 배경으로 두고 묘사하고, 후반에서는 자신의 기분 또는 감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遊山詩 作詩法의 공통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성혼은 병약한 못맛에 진정한 遊山 체험에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옛사람들의 遊山詩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보통 일반적으로 遊山詩는 제목에 ‘遊-’ 또는 ‘登-’의 접두사에 山名과 寺名을 쓰는 경우가 대개 일반적이다. 이는 遊山詩 또는 遊山記 작품으로 한시 창작에서 오랜 전통으로 굳어진 관습적인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산시의 요건을 갖춘 성혼의 작품으로는 <遊天磨山>과 <遊紺嶽山> 그리고 <登巖泉寺>⁷⁾ 등 3편이 전한다.

十載聞名畫餅同 십 년동안 그림의 떡마냥 들었는데
今朝身在此山中 오늘 아침 이 몸 산중에 왔네
眞知自在神融處 참으로 앎은 정신이 합하는 곳에 있으니
說與傍人意不通 옆 사람에게 말해 주어도 뜻이 통하지 않는다오⁸⁾

천마산에 올라 여행하며 지은 시이다. 천마산은 경기도 남양주에 속해 있어 성혼이 거주했던 과주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 할 수 있다. 산행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牛溪集』에 실린 시들이 시간적 순서대로 편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1570년에서 1573년 사이로 추정 가능하다.⁹⁾

성혼은 오래 전부터 천마산의 위용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천마산은 마치 조물주가 바위 암벽을 손수 빗어 만든 것처럼 절경으로 이름난 산이다. 그러나 성혼은 병약한 몸이기에 쉽게 산에 오르지 못했다. 비로소 천마산에 오르자 名實이 相符하는 쾌감을 2구에서 노래하고 있다. 3구에서

7) <登巖泉寺>의 경우는 3장 ‘승려교유와 사찰’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8) <遊天磨山>, 권1, 9쪽.

9) 『牛溪集』 권1에서 <題兒子所抄詩卷>는 庚午(1570)라 하여 시간을 밝히고 있다. <遊天磨山> 다음 작품이 <鄭松江母夫人挽章>으로 정철의 어머니는 1573년에 돌아가셨다. 이로써 성혼이 1570년에서 1573년 사이에 천마산을 유람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앎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참된 정신의 합일이라고 강조한다. 곧 천마산을 아는 것과 오르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천마산을 안다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앎[知]과 실천[行]의 일치는 성혼이 일생을 통해 추구했던 도학적인 자세를 엿보게 하며, 실천이 따르지 않는 앎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앎과 실천이 함께 하지 않는 폐단을 염려했던 탓인지 성혼은 4구에서 뜻이 통하지 않다는 것은 앎과 실천을 따로 구별하여 생각하는 당시의 그릇된 학문 방법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一溪清瀉兩山中 맑은 시냇물 산 가운데로 세차게 흐르고
 峽裏楓林分外紅 산골짜기 단풍 숲이 밖에 넘치도록 붉네
 更入翠微峯下寺 다시 취미봉 아래 절에 들어가려 하니
 步臨青嶠倚長松 오랜 솔나무에 기대어 푸른 산을 걷는다네¹⁰⁾

감악산에 올라 여행하며 지은 시이다. 감악산은 성혼이 거주하고 있는 파주에 있는 산으로 庚寅이라는 干支로 보아 1590년 가을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감악산은 예부터 바위 사이로 검은 빛과 푸른 빛이 동시에 나온다고 하여 紺嶽이라고 이름지었다. 1구에서 세차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맑고 투명하게 들린다. 2구에서 때마침 가을인지라 곱게 물든 단풍 색깔이 산밖으로 퍼져나갈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청각과 시각의 공감각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시인은 산에 올랐다가 취미봉 아래에 자리한 절로 자리를 옮기려고 한다. 벼랑으로 난 길을 따라가려니 조바심이 날 지경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늘 한 자리만 지키고 섰을 오래된 솔나무에 등을 기대고 있으니 한결 마음이 편하다.

성혼에게 감악산 산행은 사실 처음이 아니다. 이보다 훨씬 전인 1570년에서 1573년 사이에 지인들과 함께 紺嶽山 靑鶴洞에 있는 雲溪寺에 올랐는데, 이때 오언율시 1수와 칠언절구 1수로 이루어진 <與友人遊雲溪寺>를 지었다. 이 시는 앞서 언급했던 <遊天磨山> 바로 뒤에 실려 있어

10) <遊紺嶽山>, 권1, 12쪽

며,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두 산을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野外同清賞	들 밖에도 똑같이 감상하려
來尋鶴洞幽	멀리 청학동으로 찾아왔네
雙崖開遠峽	두 벼랑은 깊은 골짜기에서 열리고
一水瀉中流	한 줄기 물이 가운데로 쏟아 흐르네
石磴雲生屐	발 밑 돌길엔 구름이 생기고
松廊露濕裘	솔 행랑엔 북가죽이 이슬에 젖어드네
更期蓮社會	다시 白蓮의 모임을 약속하려는데
高興又宜秋	흥이 일어 또 가을에 해야하리

두 수 중 첫 번째 시이다. 頭聯에서 감악산 운계사로 찾아간 이유를 말하고 있다. 멀리서 보는 감악산도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野外’라 한 표현은 성혼이 거쳐하고 있는 곳의 바깥을 뜻한다. 때마침 청학동에 운계사라고 하는 절이 있다고 하니 성혼으로서는 꼭 가보고 싶었을 것이다.

頷聯에서 바위와 계곡을 묘사하고 있다. 두 벼랑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열려 있다고 한 것은 호기로운 표현이다. 자연의 모습을 직접 바라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이기도 하다. 두 벼랑 사이로 흐르는 물 또한 세차게 흘러가고 있음은 성혼의 얽매임 없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頸聯에서 운계사가 자리한 곳을 묘사하고 있다. 발 밑 돌길에서 구름이 생긴다는 것은 운계사의 고도가 그만큼 매우 높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솔나무로 만든 들보에 걸린 북가죽이 습기에 차서 젖어 있다는 표현은 운계사가 마치 구름 속에 갇힌 것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는 사찰의 이름인 雲溪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尾聯에서 성혼은 같이 올라온 지인들의 모임을 白蓮社로 비유하고 있다. 백련사는 중국 쑤나라 승려인 慧遠法師가 廬山의 東林寺에 거쳐하고

있을 때 당대의 명사를 초청하여 만든 結社 모임이다. 훗날에는 시인문객들에게 ‘뜻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典據로 인용되었다. 성혼은 같이 왔던 지인과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훗날 다시 만난다면 마땅히 가을에 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면서 호기롭게 끝맺는다.

深深蘿薜掩雲蹊 넝쿨 깊이 얽혀 구름길 보이지 않고
 趺坐寒巖到口西 찬 바위에 앉았더니 서쪽해 넘어가네
 茶罷更尋方丈宿 차 마시고 다시 스님 찾아 머무르니
 石林松月夜淒淒 석림의 송월은 밤에 더 쓸쓸하네¹¹⁾

이어지는 두 번째 시이다. 1구에서 ‘雲蹊’는 사찰 이름이 ‘雲溪’와 비슷하여 언뜻 誤記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넝쿨이 얽히고설킨 탓에 시야에 가려져 雲溪寺가 안보일 수도 있고, 구름길인 雲蹊가 안보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다의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雲蹊든 雲溪든 간에 어떤 뜻으로든 이해하든 간에 통용된다. 이는 그만큼 운계사가 높고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을 주변 묘사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2구에서 성혼은 차가운 바위에 앉아 가부좌 틀고 명상에 잠긴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해질녘이 되어서야 자리에 일어선다. 긴 시간 동안 명상에 집중하고 있는 성혼의 평정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3구에서 차한 잔을 마시고 나서 스님과 담소를 나눈다. 僧俗을 떠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4구에서 ‘石林’은 운계사 주변의 바위숲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사찰이라는 말의 다른 뜻으로도 읽힌다. 사찰 경내에서 한 밤 중에 뜬 달을 바라보니 솔나무 가지에 걸려 있다. 고요하고 잔잔한 사찰의 풍경이 성혼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성혼은 천마산과 감악산을 오르면서 마음의 동요를 일체 보이지 않는

11) <與友人遊雲溪寺 二首>, 권1, 9쪽

다. 갈등의 요소가 없다는 것은 성혼의 울곧은 마음가짐과 오랜 도학적 수행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성혼의 자연친화적 경향을 보여주는 시 한 수 더 들어보기로 한다.

黃嫩香宜晚
紅酣錦已齊
敲門來野客
酩酊欲鷄棲

국화 꽃은 저물녘에 향 좋고
붉은 잎은 이미 비단 같네
시골손님 문 두드려 찾아왔는데
해 저물도록 취해 있네¹²⁾

가을날에 산속에 살고 있는 지인 安應休를 찾아가 지은 시이다. 여기서 안응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한다. 『牛溪集』에 보면 성혼은 안응휴에게 한 편의 시를 보냈다. 그가 거처하는 곳까지 몸소 찾아갈 정도면 가까운 사이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안응휴는 성혼의 지우인 李珣와 성리학에 대해 문답을 나눴는데, 이이가 안응휴에게 보낸 두 편의 서신¹³⁾이 문집에 남아 있다. 이로 보아 성혼, 이이, 안응휴 세 사람이 서로 교류관계를 맺었음을 짐작케 한다.

1구에서 ‘黃嫩’은 어린 국화꽃을 뜻하며, 국화향기는 저물녘이 되어야 향이 제대로 난다고 했다. 2구의 ‘紅酣’은 붉게 물든 단풍을 뜻하며, 울긋불긋한 자태가 마치 비단을 펴놓은 것처럼 화려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3구에서 ‘野客’은 벼슬하지 않고 草野에 묻혀사는 시인 자신 곧 성혼을 말한다. 4구에서 안응휴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건만 정작 주인은 해가 지도록 술에 취해 있다. ‘鷄棲’은 杜甫의 <晚出左掖>에서 나온 말로, ‘말타고 돌아가려는데 닭이 화에 오르네/騎馬欲鷄棲’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시간의 경과를 말해주는 것으로 닭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에게 들어가는 시간 곧 해질녘이다. 성혼은 진즉부터 안응휴의 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안응휴가 술에서 깨기만을 기다려 일부러 깨우지 않았던 것이다.

12) <秋日>, 訪安應休山居, 권1, 12쪽.

13) <答安應休>, 『栗谷全書』 권12, 한국문집총간 44, 250쪽.
<答安應休>, 『栗谷全書』 권12, 한국문집총간 44, 251쪽.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물녘이 되었어도 일어나지 않는 친구를 향해 원망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 왔노라고 여태 자고 있느냐고 깨워 타박할 법도 하지만 성혼은 굳히 잠든 친구의 즐거움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위 시에서도 성혼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다. 안응휴를 찾아가는 동안 가을국화 향내를 맡고 붉게 물든 단풍잎을 보면서 경치를 玩賞한다. 술에 굶아 떨어진 안응휴의 얼굴이 마치 단풍든 것처럼 여겨 해 저물 시간이 되었어도 그가 깨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평온한 마음 상태는 성혼이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즐기는 삶을 詩 속에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僧侶 交遊와 寺刹

성혼의 正體性은 儒學者에 있다. 그가 평생을 걸쳐 추구한 학문은 도덕적 인간의 완성인 道學에 있었으며,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탓에 성혼에게 불교는 대척점에 선 가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혼은 불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문집을 통틀어서 불교에 관한 비판적인 언급은 두 차례에 지나지 않을만큼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마저 성리학에 대한 논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상황을 두고 이를 불교적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 불교 교리 자체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없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理一分殊 네 글자는 가장 體認하게 연구해야 하고, 理一만 알고 分殊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佛敎에서 作用을 性이라 하여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다. 14)

위 내용은 李珣가 ‘理一分殊’에 대해 논쟁을 하면서 불교의 특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여 답한 내용이다. 곧 理 자체에 대해 정치한 탐구가 필요한 것인데, 어느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李珣는 불교에서 敎와 禪이라는 두 체계에서 禪만으로도 깨침을 얻을 수 있다는 敎理를 예로 들면서 ‘理一’과 ‘分殊’를 따로 떼어놓고 이해한다면 불교에서 禪만을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혼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이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성혼의 평소 학문 자세는 ‘沈潛玩索’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마음이 淸明하고 專一하며, 沈潛하고 玩索하여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면서 공부하는데 단 하루라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 죽을 때까지 해야한다’¹⁵⁾고 했다. 성혼은 이를 몸소 실천하고자 했던 데에서 알 수 있다. 이밖에 불교와 관련된 성혼의 발언을 더 살펴보기로 한다.

佛家에서 “금가루가 비록 귀중하나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고 했다. 이는 성현의 말씀이 비록 귀중하나 잘못 보면 해가 된다는 것을 비유한 말로 매우 좋다. 성현의 말씀에는 그 뜻이 혹 다른 데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뜻을 찾지 않고 한갓 말에만 얽매이면 어찌 도리어 해가 되지 않겠는가.¹⁶⁾

위 내용은 聖賢의 말씀을 참됨을 가려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해가 됨을 강조한 말이다. 금은 귀한 물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금에 현혹되다보면 금만 볼 뿐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폐단에 빠지다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역효과를 우려한 것이다. 따라서

14) <書一>, 『栗谷全書』 권9, 한국문집총간 44, 196쪽. 理一分殊四字 最宜體究 徒知理之一而不知分之殊 則釋氏之以作用爲性 而猖狂自恣是也. 이와 같은 내용이 『牛溪集』 권4에 <第三書>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15) <和石潭精舍諸賢 并跋>, 『牛溪續集』 권1, 韓國文集叢刊 43, 166쪽. 所謂淸明而專一 潛玩而實體者 不可一日弛其用力之功 而俛焉孳孳 死而後已.

16) <別紙>, 권4, 99쪽. 釋徒之言曰 金屑雖貴 落眼則翳 此譬聖賢之說雖貴 誤見則爲害也 此言甚好 聖賢之言 意或有在 不求其意 徒泥於言 豈不反害乎

성현의 말씀을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본질에 더욱 힘써야 함을 불교의 비유를 들어 설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에서도 불교에 대한 배척 같은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불교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한층 이해를 높이고 있을 뿐이다.

袁黃의 재주는 兵略을 논하고 농사일을 논하는 데 뛰어났다. 그는 수령이 될 만하고 혹은 軍幕의 참모가 될 만하다. 그런데 부질없이 道를 안다고 자처한다. 입으로 南無阿彌陀佛을 외고 손으로 眞言을 쓰면서 道를 아는 자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세상이 말세가 되어 요망한 말이 일어나는 것이 마침내 이에 이른단 말인가.¹⁷⁾

袁黃은 명나라 軍務를 맡았던 관리로 『了凡四訓』을 지었다. 그런데 그가 입으로는 南無阿彌陀佛이라 염불하고, 손으로는 梵語인 眞言을 쓴다고 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道는 그 자체가 한결 같은 것인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용하는 것은 도를 추구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님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앞의 인용문과 마찬가지로 현상만을 바라보고 본질을 외면하게 되면 惑世誣民에 다름아니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불교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혼은 불교에 대해서는 교리 자체에 비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道學의 올바른 자세를 함양하기 위해 이해와 설득의 차원에서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예로써 들어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혼이 불교를 교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유연한 사고를 지녔음을 알게 해주며, 또한 儒佛 간의 會通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성혼의 시를 살펴보면 스님에게 준 시, 사찰 풍경 등 불교적 배경과 관련된 11편 남아 있다. 이 수치는 전체 75편 중 15%에 해당할 만큼 적잖

17) <書皇朝兵部主事袁黃著書卷後>, 권6, 238쪽. 袁黃之才 長於論兵論稼 可爲令長 或可爲參謀戎幕 而謾以知道自諉 安有口誦南無 手畫眞言 而有知道者乎 世衰妖興 一至於此哉

은 수치이다. 성리학에서 불 때 불교는 분명 異端이다. 성혼은 불교 교리에 대해 비판적인 언설은 없으나 스님과 왕래하고 사찰에 다녀가는 일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록 儒佛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서로 방향과 방법이 다를 것을 애초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스님과 사찰을 세상의 한 부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成渾 이전과 이후의 유학자들 또한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도 유독 스님과 사찰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이를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風雨近重陽
山齋曉氣涼
逢僧問安穩
小連善居喪

중양절 무렵에 비바람 불어도
산속 집 새벽 기운 서늘하다네
스님 만나 안부 물었더니
소련처럼 예의 잘 지켰다더군¹⁸⁾

스님에게 주는 시이다. 1573년 성혼의 知友인 鄭澈이 모친상을 당했다. 마침 문상을 다녀온 스님에게서 안부를 물었는데, 小連처럼 執喪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스님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다. 1구에서 중양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줌과 동시에 비바람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는 정철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뜻하는 시적 장치로 보인다. 2구에서 성혼이 거처하는 곳에서 새벽 기운이 서늘하다고 했다. 이는 生死에 이르러 의연한 자세를 보이는 성혼의 평정심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구에서 小連¹⁹⁾은 東夷族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형 大連과 함께 정성껏 장례를 치룬 효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는 鄭澈이 작은아들로서 執喪을 잘하였기 때문에 소련으로 비유한 것이다.

18) <贈僧>, 권1, 9쪽.

19) 『禮記』 <檀弓上>에 따르면, “小連과 大連이 執喪을 잘하여 부모가 죽은 뒤 3일 동안 게을리 하지 않았다. 3개월 동안 殯所에서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暮年 동안 슬퍼하고 3년 동안 근심하였다. 東夷의 사람이다.”고 했다.

故宅僧來訪
山人已昔時
慇懃慰孤露
出示舊題詩

오래된 집에 스님 오셨는데
부친은 이미 옛날 일이라
근심해 하는 나를 위로하고자
예전에 쓰신 시 보여주네²⁰⁾

스님은 成渾의 부친 成守琛을 찾아오셨으나 돌아가신 줄 모르고 있었다. 雲水衲子인 스님의 처지에서는 오랜만의 일이라 소식을 듣지 못했던 탓이다. 3구에서 ‘孤露’는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 안계신 탓에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를 뜻하는 말이니 곧 성혼 자신이다. 이에 스님은 바람에서 부친께서 쓰신 글씨를 보며 위로해준다. 글씨를 받아든 성혼은 마치 생전의 부친을 대하듯이 감격해한다. 그 사이에 스님이 매개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遺墨을 통한 父子 간의 만남의 감동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

성혼은 이처럼 우연찮게 스님으로부터 부친의 유묵이나 글귀를 받고나면 이에 대한 감정을 시로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시에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一讀遺篇感慨新
如今屈指十五春
餘生抱病孤村裏
來往山僧是舊人

남긴 글 읽어보니 사무치는 마음 새롭고
지금 손꼽아 헤어보니 십오년이라
여생을 홀로 병앓아 마을에서 지내는데
오고 가는 스님만이 알아주네²¹⁾

성혼의 부친이 스님에게 준 詩軸을 따라 끝에 쓴 시이다. 甲戌年이라 했으니 때는 1574년 5월이다. 성혼은 부친께서 남긴 시를 읽으니 감격하여 마음에 사무치는 감정이 새롭게 솟구쳤다. 글쓴 시점을 헤아려보니 지금부터 15년 전이고, 부친이 세상을 뜬지 딱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혼은 현재 병을 앓고 있다. 돌봐주는 이 없이 홀로 마을에서 지

20) <書先考題僧軸詩後>, 권1, 10쪽.

21) <書先考題僧軸詩末>, 『牛溪續集』 권1, 165쪽.

내는데, 오고가는 스님만이 나를 알아봐주고 찾아와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성훈과 스님은 서로 초면일 것이다. 스님은 부친을 기억하고 아들을 찾아왔던 것이다. 아들인 성훈을 통해 이생에서 다시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또한 부친께서 생전에 맺어준 인연이다.

坐觀雪岳十年輕
初下遊方道氣清
重渡牛溪尋舊意
不堪孤露說餘生

설악을 앉아 구경하니 십년 세월 잠깐이고
지방에 막 내려오니 도기가 깨끗하네
다시 우계 건너 옛 일을 찾으려니
고로의 여생은 말로 못하겠네²²⁾

앞 시를 쓰고 2년 후 여름에 쓴 시다. 이 또한 부친께서 남기신 시를 次韻하여 스님의 시축에 쓴 것이다. 1구에서 설악은 지명으로 추정되나 어느 곳인지 정확치 않다.²³⁾ 10년 세월이 잠깐이라 함은 아마도 전에 와 본 적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성훈은 坡山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온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道氣가 깨끗하다고 했다. 도기는 통속적인 사고를 초탈한 기질을 뜻하는 것으로 꾸미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말한다. 3구에서 牛溪 성훈이 살던 동네의 계곡이름이니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그러나 옛일은 무엇일까. 아마도 부친과의 추억을 되새겨보는 것은 아닐까. 4구에서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의 처지인 孤露라 했으니 남은 인생이 서글프기만 하다. 그나마 부친의 遺墨에 적잖이 위안을 받고 있다.

성훈은 부친의 遺墨을 통해 애뜻한 정을 나누는데, 하루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부친께서 손수 쓴 서첩을 받아들고 감격해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문집에 실려 있다.

22) <敬次先考韻題僧軸>, 『牛溪續集』 권1, 165쪽.

23)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행한 국역 『牛溪集』 2에는 ‘설악산’으로 번역했으나 필자로서는 성훈이 강원도 설악산으로 갔는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 만일 설악산으로 갔다면 <우계연보>에 수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악산이라 번역한 부분에 대해서 再考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선친께서 杜律 五言詩 100首를 써서 白雲居士 曹雲伯에게 주었다. 그는 평생 동안 보배로 여겨 감상하고 일찍이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이 서첩을 가지고 五冠山으로 들어가 초가집을 짓고 살면서 일생을 마쳤다. 甲申年 한겨울에 조장이 별세하자 그의 첩인 李氏가 계집종을 보내와 말하기를 “조 선생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제 세 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서첩을 어르신에게 부탁하오니, 이 아이가 장성하거든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였다. 내 감히 사양할 수가 없어서 삼가 받아서 읽어 보니, 옛날과 지금이 생각나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러나 나도 병든 사람이어서 오래도록 기약할 수가 없었다. 내가 만약 身病이 위태로워지면 즉시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돌려주어서 행여 부탁한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²⁴⁾

부친 성수침이 두보의 시 100편을 손수 써서 백운거사에게 줬다. 백운거사는 이를 서첩으로 裝潢하여 집안의 가보로 애지중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자 첩이 찾아와 아직 아이가 어려 장성할 때까지만 보관해달라고 부탁한다. 이 때가 1585년으로 성수침이 세상을 뜬지 20년이 지났다. 성혼은 서첩을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백운거사의 첩이 이렇게 찾아와 준 것도 고마운데, 부친의 유묵을 받들고 보니 그립고 아쉬운 마음이 교차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혼의 몸도 성치 않아 혹 무슨 일이 생기면 백운거사의 아이에게 반드시 돌려주겠노라고 하여 이를 다짐하는 뜻에서 글을 남겼던 것이다.

앞의 시 세 편에서 보았듯이 성혼은 스님과의 교유를 통해 부친과 추억을 되새기고 있다. 자신의 학문의 뿌리가 부친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그에게 부친이라는 존재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遺墨은 곧 부친의 분신이나 다름없었으니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이야기가 괜한 말은 아닐 것이다.

24) <書先考書帖後>, 『牛溪續集』 권6, 238쪽. 先君子書杜律五言百首 贈白雲居士曹丈雲伯 曹丈平生寶玩之 未嘗釋手 携入五冠山中 結茅終老 甲申仲冬 曹丈考終 其妾李遣女奴來曰 曹先生有一兒 今三歲矣 願托是帖於吾君 待吾兒長而後授之 渾不敢辭 謹受而閱之 感念今昔 爲之潸然 雖然 渾亦病人也 末期久遠 吾若危殆 卽當奉還其兒所在 庶不負重托也 乙酉六月 渾書

亂離曾見史書中
沈痛今朝着我躬
西望翠華天極目
每登高處泣無窮

난리란 말 일찍이 책 속에서 보았더니
침통함이 오늘 아침 이내 몸에 이르렀네
서쪽으로 멀리 의주를 바라보는데
높이 오를 적마다 한없이 눈물 흘리네²⁵⁾

성혼은 강원도 철원에 있는 巖泉寺에 올랐다. 이때가 1592년으로 壬辰朝日戰爭²⁶⁾이 발발한 해인데, 1구부터 난리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성혼 자신 또한 戰亂을 겪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책에서만 보았던 실상을 실상을 직접 겪어보니 그 현실감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戰亂이 있기까지 당시 상황은 穆陵盛世라 하여 太平聖代를 구가했지만, 戰亂의 위험이 늘 상존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잃고 안일한 인식 끝에 빠져 결국 경계가 무너지면서 온국토를 戰亂의 참상 속에 빠져들게 했다. 2구에서 戰亂으로 인한 폐해가 극심함을 고발하고 있다. 3구에서 翠華는 비췌빛 깃털로 만든 日傘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宣祖가 거쳐하고 있는 漢陽을 뜻한다. 난리통에 都城을 버리고 義州로 蒙塵간 임금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4구에서 난리의 극심한 고통은 절정에 이른다. 높은 바위에 자리한 절에서 사방을 바라보니 난리로 고초를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샘만 자극할 뿐이다.

위 시에서는 자연풍경에 대한 감상이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난리 통에 감상은 온당치 않은 처사일 뿐 차라리 사치에 가깝다. 오로지 임금과 백성을 걱정하는 憂國衷情만 있을 뿐이다.

知音已去朱絃絕
山月孤來溪水悲
偶與老僧尋舊話

친구는 이미 떠나가 붉은 줄 끊겼으니
산 위에 달 홀로 뜰고 시냇물 구슬피 흘러가네
우연찮게 노스님 만나 옛이야기 하니

25) <五月七日 登巖泉寺>, 권1, 12쪽.

26) 일반적으로 壬辰倭亂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기서는 정운현의 『친일과는 살아있다』(책보세, 2011)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天涯垂淚獨躑躅

천애 멀리 눈물 떨구며 홀로 머뭇거리노라²⁷⁾

위 시는 한 스님이 시축을 보여주었는데, 마침 그 안에 율곡의 시가 있음을 발견하고 옛 생각을 떠올리며 지은 것이다. 이 시는 1593년에 지은 것으로 이이가 세상을 떠난지 10년째 되던 해이다. 더구나 石潭書院은 이이를 배향한 서원인데, 이곳에서 詩軸을 보았으니 더욱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다. 성혼에게 이이는 일생에서 가장 많은 교유를 가진 인물이었으니 그 마음이 각별했을 것이다.

1구에서 붉은 줄이 끊겼다 함은 伯牙의 친구 鍾子期가 세상을 떠나자 이제 자신의 음악을 알아줄 친구가 존재하지 않으니 거문고를 더 이상 갖고 있을 필요 없다는 뜻이다. 2구에서 伯牙가 거문고를 연주하면 산 위에 떠오르는 달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또 구슬프게 흐르는 시냇물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鍾子期와 옛추억을 말하고 있다. 이렇듯 성혼과 이이는 伯牙絕絃의 고사처럼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지켜주는 관계였다. 그러나 이이가 떠난 후로는 성혼은 孤立無援처럼 외롭고 쓸쓸했다. 우연히 만난 스님에게서 옛친구의 시편을 풀어보니 마치 눈 앞에서 만난 것처럼 반갑다. 그러나 친구는 말이 없다. 대신 시편을 끌어안고 어제 본 듯이 말을 건넌 뿐이다. 그리고 보고 싶은 친구 생각에 눈물이 자꾸 앞을 가려 이리저리 배회할 뿐이다.

一筇雲衲下秋山
亂世無如出世閑
寒磎落葉迷行逕
唯趁疎鍾自往還

지팡이 짚고 누더기옷으로 가을산 내려오니
난세에는 절보다 한가로운 것이 없다네
찬 계곡에 낙엽 떨어져 길 헤매는데
오직 종소리 듣고 오고 가네²⁸⁾

위 시도 1593년 가을에 신광사 스님에게 준 시이다. 神光寺는 추측컨대 황해도 해주²⁹⁾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구에서 지팡이 짚고 누더기옷

27) <有僧持詩軸來謁>, 권1, 13쪽.

28) <贈神光寺僧>, 권1, 13쪽.

을 걸쳤다 함은 아마도 신광사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둘러보니 戰亂의 참상에 비통해 할 뿐이다. 2구의 ‘出世閑’은 출세간의 한가로움이라는 뜻이다. 出世間은 속세의 생사번뇌에서 해탈하여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니 여기서는 곧 신광사를 말한다. 어지러운 세상보다는 한가로운 절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자괴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3구에서 성혼은 다시 신광사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겹겹이 쌓인 낙엽 탓에 길을 구분 못하고 있다. 오직 종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만 찾아갈 뿐이다.

위 시에서 보듯이 산하대지는 가을옷으로 단장하고 있지만 戰亂의 참상 탓에 이마저 감상을 허락지 않는다. 성리학을 평생을 학문으로 삼고 지내왔지만 戰亂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성혼으로서는 평소 經世濟民하려는 포부도 사치로만 보였을 것이다. 나약한 지식인의 힘없는 발걸음을 그나마 종소리가 위로해준다.

海國春生早
山扉水滿溪
花朝行犖确
雲衲共提携

바닷마을에 봄이 일찍 이르니
절 문 앞 계곡에 물 가득하네
아침에 꽃피고 자갈길 걷는데
스님과 함께 손잡고 가네³⁰⁾

앞의 시를 지은 이듬해인 1594년 봄에 신광사의 詩軸에 次韻하여 지은 시이다. 아직 戰亂이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1년 전과 사뭇 많이 다른 모습이다. 이유는 봄에 있다. 戰亂의 참상에도 불구하고 봄은 만물의 생기를 북돋운다. 잠시 봄이나마 戰亂의 참상을 잊을 수 있었다. 신광사가 바닷가 쪽에 자리한 탓인지 봄이 빨리 왔다. 겨우내 얼었던 계곡에 물이 가득차

29) 황해도 해주의 신광사로 추측하는 이유는 성혼과 동시대를 살았던 許筠(1569~1618)의 <神光寺>와 權輶(1569~1612)의 <訪神光寺途中作> 등의 시에서도 나타나며, 성혼의 거처했던 坡山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로 보았기 때문이다. 허균에 따르면 신광사는 고려 때 지었으며, 불교건축과 유물이 매우 화려했다고 한다.

30) <次神光寺詩軸韻>, 권1, 13쪽.

다. 아침에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걷는데 봄꽃들이 賞春客을 반긴다. 4구의 ‘雲衲’은 ‘雲水衲子’를 줄인 말로 스님을 뜻한다. 다른 뜻으로는 스님의 누더기옷이 구름처럼 펼럭인다고 해서 거처가 일정치 않는 스님을 가리키기도 한다. 성혼은 상대가 누구든 개의치 않고 스님과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걷는다. 전란의 참상에 불구하고 봄이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상처를 딛고 새롭게 일어서려는 의지로 보인다.

여기서 分別을 내어 儒佛을 가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스님과의 交遊는 聖俗을 초월한 인간적인 만남 그 자체이고 儒佛 회통의 한 모습으로써 아름다운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성혼은 스님과의 관계를 부친으로부터 대를 이어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친께서 남긴 詩와 遺墨은 병으로 고생하는 성혼에게 처방약과 같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찰 등지를 유람하며 자연과 함께 완상하는 여유를 가져다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유교니 불교니 하고 分別하는 것은 성혼의 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그가 평생을 걸쳐 추구한 학문은 道學의 완성이었지만 이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본다. 다만 戰亂으로 인한 참상에 직면하면서 나약한 지식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그는 시의 양식적 기능을 활용하여 곡진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4. 맺음말

성혼은 문학보다는 철학, 곧 性理學에서 차지하는 업적과 영향력이 더 크다. 비록 그가 남긴 漢詩 작품이 75편 82수에 불과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성리학에 가려진 성혼의 시세계를 살펴보는 것은 그 또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性情을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는 문학이 제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문학을 조명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다.

성혼은 병약한 몸으로 인해 다른 사대부들과 달리 遊山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 더구나 멀리 떨어진 곳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대신 그의 거주지인 坡山과 가까운 天磨山과 紺嶽山 등에 올라 자연의 완상하고 즐기는 취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을 대하는 성혼의 마음은 일체의 갈등과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가 道學을 통한 인간 완성에 뜻을 두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遊山의 연장선에서 성혼은 스님과의 교유를 통해 사찰공간에 대해 개의치 않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중 스님과의 교유는 성혼이 아닌 부친 成守琛이 생전에 교유했던 스님들과 대를 이어 교유하고 있는 모습을 특성이다. 성수침이 남긴 詩를 次韻하여 부친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특히 遺墨의 경우는 뜻하지 않는 만남으로 인해 생전의 부친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성혼의 인생 후반부에 이르면 壬辰朝日戰爭이 발발하여 온 산하대지가 倭賊에 의해 유린당하는 현실 속에서 지식인의 나약함에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憂國과 愛民의 복잡한 심사를 달래주기 위해 선택한 곳은 寺刹 공간이었다. <次神光寺詩軸韻>라는 작품은 그가 이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딛고 새롭게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성혼에게 사찰 공간은 儒佛의 分別이 아니다. 儒佛이 향하는 목적지를 위해 서로가 방법을 달리 할 뿐이지 결국은 모두 다 같은 사람이라는 會通의 자세로 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시습, 『梅月堂集』, 한국문집총간, 13, 한국고전번역원.
성 혼, 『牛溪集』, 한국문집총간 43, 한국고전번역원.
이 이, 『栗谷全書』, 한국문집총간, 44·45, 한국고전번역원.
- 구본현, 「성혼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6호, 한국한시학회, 2001.
- 성기조, 「牛溪詩評說」, 『批評文學』 3호, 한국비평문학회, 1989.
- 원용문, 「우계 성혼론」, 『漢文學論集』 12호, 근역한문학회, 1994.
- 임준성, 「牛溪 成渾의 交遊詩 研究」, 『인문학연구』 42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 정상균, 「성혼 시세계 연구」, 『古詩歌研究』 7호, 한국고시가문학회, 2000.
- 정운현, 『친일파는 살아있다』, 책보세, 2011.

투고일 : 2014 1월 15일, 심사 : 2014년 1월 17일~2월 7일, 게재확정 : 2월 7일

<Abstract>

A Study on Seong Hon's Poetry

Lim, Jun-sung

In this paper, Confucianism who lived in the 16th century Seong Hon (成渾, 1535-1598) for the literary world will look at. He left a 82 films. This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other writers to shame. However, in the meantime, focusing on research and study has been made of the Seong Hon. Therefore, in this paper, focusing on the literature of Seong-Hon playing around on the mountain from edge to his father signed as monks and had a look at the fellowship each other.

Seong Hon is the body is weak from an early age, unlike others, did not have a lot of opportunities to climb the mountain. Moreover, the further away from home even more difficult. Instead, he lived near bankruptcy and Gamaksan(紺嶽山), Cheonmasan(天磨山) up and listen and enjoy the natural flavor of the show. Seong Hon's mind is natural to treat the conflict and did not shake. Confucianism through which he completed in humans was possible because there seems to have placed.

Seong Hon is going up the mountain with the taste and the fellowship each other between the monks and do not care about the section shows the recognition. The fellowship each other between the father and the holy monk dual Seong Su-chim(成守琛) signed a lifetime fellowship each other with the monks continue to meet for that point feature. When left by his father to follow instructions well for holy longing for his father were able to resolve, especially letters left by his father because of a meeting

does not mean lifetime feel like dealing father prayed.

Seong Hon's life as early as the second half of the Korea-Japan war on Land being devastated by the Japanese intellectuals in reality a frustrated figure shows weakness. Countries concerned to appease the people concerned to give complex examination of the section where he was selected. Such as a <次神光寺詩軸韻>, the work of the heart, he is here to show commitment to overcoming major new work of overcoming is trying to stand up.

Confucianism and Buddhism to the section that is not distinguishable. Confucianism and Buddhism are facing each other for the destination, but how else to end up like all the other people that will look through the posture.

Key words : Seong Hon(成渾), Seong Su-chim(成守琛), Climbing the mountain, Monks, fellowship each other